

“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박성목 _ 비록 페이지수는 적지만 모든 내용이 알차고 유익해서 직원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중 '신 동의보감' 갑상선 편을 읽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솔직히 갑상선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갑상선으로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는 항상 즐거운 마음과 건전한 사고방식, 스트레스 없애기 등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리라 맹세합니다. 내년에는 페이지수를 늘려주시고 후반부에 독자엽서를 첨부하여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영민 _ 올해의 마지막 '언론  사람'을 마주하니 여느 호보다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이 갑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후기' 칼럼에 소개된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강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설레임과 막중한 책임감에 대하여 기사 속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고스란히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타민 같은 일'이라는 기사의 제목처럼 회사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일상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비타민이라 여기는 모습에서 직장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란 무엇인지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 넘치는 언론중재 관련 교육과 강의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밝은 미소가 되어 주고 계시는 강사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정규석 _ 지방신문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언론과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쓰면서 알게 된 '언론  사람'을 관심 갖고 읽고 있습니다. 표지까지 합해도 16쪽이지만 '언론  사람'을 통해 언론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특히 12월호의 '2014 언론중재위원회 국제컨퍼런스 중계'에서 다룬 '사건 본위에서 인간 본위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신속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주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칼럼인 '내 안의 인문학'에서 "현대미술의 감상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보고 눈에 띄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새롭게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그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한 부분은 그림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언론 또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